

9월 25일(수) 10:00
IBK 1st Lab 출범식
IBK파이낸스타워

축 사

2019. 9. 2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IBK 1st Lab」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5년 기업은행의 첫 번째 핀테크랩인
「핀테크 Dream Lab」이 출범한 후
29개의 핀테크 기업이 랩을 통해
은행과 협업하며 아이디어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실의 하나로 오늘의 「IBK 1st Lab」도 탄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도진 기업은행장님과
그리고 기업은행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BK 1st Lab」을 통해 잠재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5개 기업*과,
앞으로 입주할 12개 기업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KTx벨소프트, 한패스, 인포소닉, 탱커펀드

II. 핀테크 혁신 노력과 향후 정책방향

기업은행은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혁신 전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육성플랫폼인 IBK創工을 설립하여
119개의 혁신적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왔습니다.

또한,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 등
중소기업의 대출에도 혁신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의 65%를 점유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핀테크 기업과 협업 모델을 개발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핀테크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업은행 앱인 i-one bank에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한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플랫폼*을 출시하여
정책금융에 있어서도 혁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Business Operation eXpert], 정책자금, 판로개척, 대출 등의 정보제공 플랫폼

이에 더하여, 이번에 출범하는 퍼스트랩은
단순한 지원 중심의 기존 랩과는 달리
다양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테스트베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퍼스트랩은 은행 본점에 자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유기적이고 활발하게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퍼스트랩이 핀테크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즉각 이어질 수 있는
모범적인 혁신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에 124억원을 직접투자해왔으며,
오늘 향후 3년간 500억원의
직·간접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은행들과 함께
핀테크 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먼저, 은행들이 핀테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출자 대상 핀테크 기업을 확대하는 등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과감하게 운영하고,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마무리 말씀

기업은행은 1961년 설립 이래
370만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이제는 퍼스트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핀테크 혁신에 있어서도 선두주자로서
앞장서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존 질서가 뒤바뀌는 혁신의 시대에서는
은행 업무 프로세스에도 전반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영진이 디지털부서에 더 힘을 실어주셔서,
기업은행이 최고의 디지털은행으로서
우리나라 금융분야의 혁신을 주도해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퍼스트랩의 테스트 베드를 통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